

완주삼례 딸기축제 즐기세요

내일~27일까지 개최
수확체험등 행사 다채

완주 삼례딸기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삼례문화예술촌(삼례역인근)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허리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뛰어난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례 딸기'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제18회 완주삼례딸기축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식품(케익, 인절미, 찹 등)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의 미술관,



책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등 고유의 문화체험을 비롯하여,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삼방밴드공연, 저글링공연, 노래자랑 등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딸기 즉석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락가 판매도 진행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건강은 어릴 때부터 지켜요

무주군, 비염·아토피·충치 예방교실 운영

무주군이 관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행거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올해 '한의약 소아 청소년 비염 클리닉'과 '아토피케어용품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충치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생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소아 청소년 비염 클리닉은 다음 8일까지 신청방문 또는 전화·팩스를 받아 4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매주 화요일 15:00~17:00) 12주프로그램으로 진행(진료비 무료)된다.

한의약 소아 청소년 비염 클리닉에서는 공중보건간사가 비염 여부를 진단해 한방 침 시술과 레이저 및 한방 종류약을 통한 비염치료, 증상에 따른 한방 스프레이를 처방한다.

충치예방사업은 관내 어린이 집 10개소 488명의 어린이들에게 구강검진과 보강교육, 불소도포, 양치지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치아건강을 위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교실은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거나 예방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하며, 아로마·자연요법 전문 강사로부터 '효과적인 아토피 예방관리'를 비롯해 '자연 순리에 근접한 생활환경 및 음식으로 아토피 다스리기'에 대한 강좌를 듣고 베이비 크림과 알로에 진정 에센스, 녹차 핸드크림 등 아토피 예방 용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호응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까지

무주군이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 간 다문화 가정 한글교실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가족관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군청 드림스타트 복지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한글교실 수강생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하고 싶다"며 "한글수업이 한국문화 이해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줘서 아이들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은 한글교실 외에도 반딧불다모아 협동조합을 통한 다문화가족들의 일

자리 창출과 상호 간의 고충 해결, 교육과 가정,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족 행복프로그램(부부상담, 예비학부모 교육 등)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교육 진행, 그리고 다문화 어르신 문화지원사업(밴드, 수화합창단)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친정내들이와 친정부 모 초정을 지원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장효순 과장은 "무주군의 다문화가정은 180여 세대로 군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발굴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치어방류로 생태계 보존한다

수산자원 보호·어가소득 증대 '일거양득'

진안군은 올해 치어방류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치 어종인 소가리 외 4종을 관내 용담호 및 하천에 방류할 계획이다.

치어방류사업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내수면 토종어종을 방류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내수면 생태계의 소중함과 자연 보호 인식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2007년도부터 치어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억7,000만원을 투자해 붕어 52만마리 외 소가리·뽕장어·다슬기·동자개·자라를 용담호 및 관내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산란장 3개소를 용담댐 내에 설치했다.

올해에는 3월초 정천면 월평천에 붕어 수정란 500만 알을 방류하였으며,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소가리 3만 마리, 붕어 4만 마리, 뽕장어 1만2,000 마리, 다슬기 147만 마리, 동자개 8만

마리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군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과 연계, 참게·빙어수정란 등 종묘방류사업과 고부가가치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수면 자원 증가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해 내수면 생태계 보존과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방류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는 물론 불법어업 단속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완주군 다자녀 양육비 지원 인구유입·출산장려 효과

4년 간 매달 10만원씩

완주군의 다양한 출산과 보육정책이 짧은 층 여성의 높은 호응을 얻어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에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비(300보육프로젝트)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8세부터 만9세까지 셋째아이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총 48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라북도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 당시 수혜자는 257명이었으나, 2016년 3월 현재 387명으로 5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봉동 둔산지구와 이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 인구 유입과 신생아수 증가에 복속한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의 지난해 신생아수는 915명으로 2014년에 비해 128명 늘어났고, 인구 또한 지난해말 기준 9만

5303명으로 1년 사이 4282명 증가했다.

봉동을 거주 다자녀가정(5명) 정희진 씨는 "아이들 2명이 해당 되서 아이들 교육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완주군에 사는 게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사업과
063-430-2951

국립클리닉

장수 산서농기계임대사업장 개소

장수군은 23일 오전 11시 최옥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관내 농업인·기관·단체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임대사업장 산서분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산서면 신청리에 위치한 농기계사업장은 2,448㎡ 부지에 건축면적 682㎡으로 군은 총사업비 11억원을 들여 37종 47대의 임대농기계를 매입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원거리로 농기계 임대 불편을 겪어왔던 산서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마련돼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농가들의 영농불편해소와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와 함께 산서면 등 3곳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갖추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필요시 방문 또는 전화(063-353-53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3명 위촉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23일 유기홍 의원의 2명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장수군에서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밖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회비) 및 사외(회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급고의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며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내달 30일까지

저수지 국가안전대진단

진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저수지 147개소(진안군 116, 농어촌공사 25)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은 3년간 점검대상 141개 시설 중 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해 현재 30%의 점검율을 올리고 있다.

관내 저수지 A, B등급 10%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 점검을 하고 C, D등급 저수지는 진안군과 농어촌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해 늦어도 오는 4월 초까지 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D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2017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수군 CYS-Net 운영위 개최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3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6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에 이어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전주교육센터 등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안내 및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지립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CYS-Net를 통한 청소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